

美·아랍 5개국 첫 시리아 공습...IS 요원 등 370명 사상

미, 오사마 빈 라덴 측근 주도 '호라산그룹' 단독 공습

오바마 "미국만의 싸움 아니다"...IS격퇴 장기전 시사



미국과 아랍 5개국의 첫 시리아 공습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요원 등 370명이 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현지시간으로 23일 오전 3시30분(한국시간 오전 9시30분)께 시작됐으며, 첫 공습에서 인명 피해와 함께 시리아의 락카와 데이르에조르 등 IS의 주요 근거지 시설들과 '호라산그룹'의 거점 등이 파괴됐다. 공습에는 크루즈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 160발이 동원됐다. 정확한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최소 70여 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했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4개 지역 공습=이날 공습은 크게 미국과 아랍 5개국의 IS 공동공습과 미국 단독의 '호라산'(Khorasan) 공습으로 구분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5개국은 시리아의 IS 거점인 락카와 데이르에조르 등을 공습했다.

미국방부는 성명에서 IS의 여러 거점을 공습해 조직원들을 사살했으며 훈련소와 지휘시설, 창고시설, 금융센터, 무장 차량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동 5개국과의 IS 공동공습과 별개로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라산 그룹을 겨냥해 시리아 북부 알레포와 이德利브 주 인근을 단독으로 공습했다.

호라산 그룹은 알카에다 연계 반군인 알누스라전선의 분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IS 보복 다짐에 미국 공습 확대 예고=I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 조직원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사니다가 이번 공습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주도의 공습에 대한 보복공격을 경고했다.

IS는 앞서 전날 아부 무함마드 알야드나니 대변인이 인터넷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반 IS 동맹"에 참여한 국가의 불신자들을 죽여도 된다. 불신자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상관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죽여라"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시리아 공습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5개 아랍국가가 참가한 이번 연합전선의 힘은 이번 싸움이 미국만의 전투가 아니라는 점을 세계 곳곳에 명백하게 보여준다"면서 "IS를 격퇴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습 확대를 예고했다.



연기에 휩싸인 IS 시설물 미국과 아랍 5개국이 23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공습을 개시했다. 사진은 공습을 받은 탈 알 카타르 지역의 한 시설물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모습으로, 미 중부군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북 인권 상황 개선 논의 '남북대화' 제의

윤병세 외교 장관, 미 국무부 주재 고위급 회의서
케리 장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뉴욕 맨해튼 윌드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에도 인권 대화와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다른 나라와의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북한이 인권 대화와 관련한 의지를 내비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인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남북이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해 북한 인권 사무소를 한국에 개소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긴밀히 협의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한 뒤 "유엔 총회에서도 책임 규명 방안을

포함해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케리 장관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고문과 낙태 등은 일상적인 일이다"며 "오늘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본성 자체를 짓밟는 북한의 지독한 행태를 더는 눈 감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사악한 제도'(evil system)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닫아야 한다. 이 사악한 시스템을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폴란드 출신 전 대주교
아동 성매수 혐의 체포

바티칸은 폴란드 출신의 요제프 베소위프스키 전 대주교(65)를 아동 성매수 혐의로 체포, 가택에 연금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소위프스키 전 대주교는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중 남아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현지 언론에 폭로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 그는 지난해 8월 바티칸으로 소환된 데 이어 올해 6월 바티칸 신양교리청의 교회사재판소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도 박탈당했다.

현재 로마에 거주하면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베소위프스키 전 대주교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가택 연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中 전인대 선거안 반대' 홍콩 대학생들 휴업투쟁

타마르 공원 집회 4000여명 참여
반중국성향 인사 출마 허용 요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달 말 의결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보통선거 안에 반대에 이번 주부터 동맹휴업 투쟁에 돌입한 홍콩 대학생들이 23일(현지시간) 정부청사 부근에서 야외 투쟁에 나섰다.

학생들은 이날 홍콩 정부청사와 입법회(한국 국회) 주변 타마르 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반(反)중국 성향 인사의 행정장관 후보 출마도 허용하는 진정한 보통선거안 마련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시민에게 전단과 민중회에 대한 바람을 담은 노란 리본을 나눠주며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정부청사 앞에 나타난 링춘잉

(梁振英) 행정장관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학 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 HKFS)의 알렉스 조우(周永康) 비서장은 "링 장관이 이를 내 시민과 대화하지 않으면 투쟁 강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링 장관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피한 채 기자들에게 "어떠한 정치 개혁도 중앙 정부의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인 HKFS는 이날 집회 참가자 수를 약 4000명으로 추산했다.

전날 홍콩 중문대학에서 열린 동맹휴업 선언 집회의 참가자 1만3000명보다는 작은 규모다. 홍콩 명보(明報)는 중문대 집회 참가자 수가 2012년 중국식 국민교육 반대 집회의 참가자 8000명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경전남대학교

추천 회원	재혼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취업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男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산 여성' 희망 31~58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26~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女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700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02 햇살론대출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04 저당담, 직영면 신용대출
최저 3.5%~	운용자금 최고 2천만원, 합입자금 최고 5천만원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간편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이체, 주체, 생기, 공과, 내차, 보험, 전, 담, 모빌	대출자: 신용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최저 4.0%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대출자: 직장이나 직영면, 전세
대출한도: 최고 20% (자산비율)	대출기간: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상환방법: 일시상환 (이자소득용 가능)	대출한도: 최고 1억원
상환방법: 월상환 (이자소득용 가능)	합입자금 최고 5천만원	구비서류: 전세보증서, 전세보증금, 주민등록-호로 각 1통	대출금리: 최저 5.0%~
구비서류: 동계정리표, 전세보증금, 주민등록-호로 각 1통	대출금리: 연 8.01% (이연상환금리)	신청서류: 대출신청서, 신용평가서, 주민등록-호로 각 1통	특약: 대출 이자 지급 추가 인하
보통: 대출금리 0.95% (자영업금리) 0.90% (근로자)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대 2.5%	1년 3.1% 2년 3.2% 3년 3.3%
단, 하루를 앞까지 앞천만원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충장지점: 구도청, 송림, 우리은행, 삼성생명, 광주일고, 유봉, 노은동